

국내 뉴스



아카데미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올해 개봉한 북미 외국어 영화 중 최고 흥행 수익을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영화에 등장한 노래 '제시카 징글'이 SNS를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화 기생충은 지난 11월 10일 기준 1,127만 8,976달러(약 131억 원)의 흥행 수익을 올렸다. 이는 올해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중 최고 기록이다. 상영관 수는 461개에서 603개로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래 '제시카 징글'이 화제다. 가정(박소담)이 박사장(이선균) 네 과외선생님으로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가는 직전 장면에 등장한다. 학력을 속인 오빠 기우(최우식 분)와 기정이 말을 맞추기 위해 '독도는 우리땅' 멜로디를 차용해 즉석에서 부르는 노래다. 해당 노래는 '제시카 송', '제시카 징글(Jingle)'로 불리며, 북미 관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현지인들은 SNS를 통해 '제시카 징글'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운 버전으로 편곡하고 있다. 인기로 힘입어 기생충의 미국 배급사 네온은 박소담에게 배우는 제시카 징글이라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배우 박소담이 제시카 징글을 부르며 직접 노래에 대해 설명한다. 네온 측은 제시카 징글을 음원으로 제작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 기생충은 미국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아카데미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 유력 후보를 예측하며, 기생충이 최우수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블랙핑크 '뚜두뚜두' 뮤비 10억 조회 수... K팝 그룹 중 최초

걸그룹 블랙핑크의 노래 '뚜두뚜두'의 뮤직비디오가 K팝 아이돌 그룹 최초로 유튜브에서 조회 수 10억 건을 넘어섰다. 앞서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10억 건을 돌파했지만 K팝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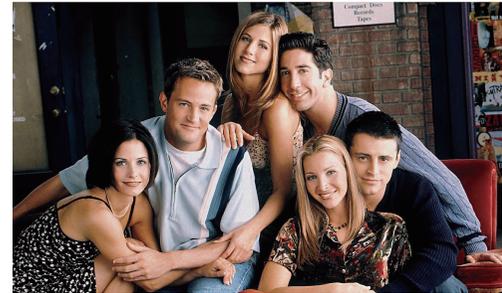
블랙핑크가 지난해 6월 발매한 미니앨범 'SQUARE UP'의 타이틀곡인 뚜두뚜두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8월에는 K팝 아이돌 그룹 최초로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 골드(50만 장 이상 판매) 인증을 받았다. 또 SQUARE UP과 뚜두뚜두는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 핫 100에서 각각 40위, 55위에 올랐다.

뚜두뚜두 외에도 블랙핑크의 또 다른 히트곡 '붐바야'와 '마지막처럼'의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도 7억 건을 넘었다. 아울러 블랙핑크의 미국 진출곡인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역시 6억 4,500만 뷰를 기록하며, 뚜두뚜두보다 빠르게 조회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블랙핑크는 지난 11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바커행거에서 진행된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미국 진출곡인 '킬 디스 러브'로 '올해의 뮤직비디오', '올해의 그룹', '올해의 콘서트 투어' 부문을 수상했다. 블랙핑크는 타임지가 올해 신설한 '타임 100 넥스트 2019'에 선정됐다. 타임 100 넥스트 2019는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정치, 과학, 건강 분야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떠오르는 스타 100명을 선정한다. 타임은 "블랙핑크는 미국에서 아직 떠오르는 스타일 수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미 최고로 군림했다. 이들의 유튜브 구독자 수 3,100만 명은 세계 어느 음악 그룹보다 많다"고 소개했다.



해외 뉴스



미드 '프렌즈' 25주년 맞아 재결합 논의

세계적으로 사랑 받았던 미국드라마 '프렌즈(Friends)'가 25주년을 맞아 재결합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월 13일 미국 매체 할리우드 리포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프렌즈의 출연진인 제니퍼 애니스톤, 커트니 콕스, 리사 커드로, 매트 르블랑, 매튜 페리, 데이비드 슈위머와 시리즈 제작자들이 25주년을 기념해 HBO Max에서 재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으며, 출연자들과 창작자들이 합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제니퍼 애니스톤은 SNS에 프렌즈 출연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토크쇼에 출연해 "프렌즈와 관련해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모른다.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해 재결합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프렌즈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방송된 미국 NBC 시트콤으로, 뉴욕에 사는 6명의 젊은 남녀들이 겪는 일상을 에피소드로 다뤘다. 프렌즈는 따뜻한 청춘들의 우정과 사랑을 다뤘으며, 룸메이트들끼리의 수평적이고 유쾌한 분위기를 묘사했다. 20여 년 전에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가정 중심적이고,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다뤘다. 프렌즈는 이런 틀을 깨트리며 젊은 시청자들로부터 공감과 인기를 얻었다. 무려 시즌 10까지 방송되며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기를 누렸다. NBC는 시즌10 마지막 회 시청자 수를 약 5,246만 명으로 추산했다.

마틴 스콜세지 vs 케빈 파이기 '마블 영화' 논란 시끌

세계적인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디즈니의 마블 시리즈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블 스튜디오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즉각 반박에 나서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틴 스콜세지는 11월 4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마블 영화는 테마파크에 가깝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이들은 영화가 아니다. 마블 영화엔 새로운 것이 없고, 미스터리와 정서적 위험이 없다.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며, 한정된 주제들을 조금씩 변주하도록 디자인됐다"면서 "명목상론 속편이지만 본질적으로 리메이크다. 마켓 리서치, 관객 테스트, 검증, 수정, 재검증, 재수정을 거친다. 소비될 때까지 계속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케빈 파이기 마블스튜디오 사장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마블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고 한 마틴 스콜세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케빈 파이기는 "나와 이 영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화를 사랑하고, 극장에 가는 것을 사랑하고, 사람들로 가득 찬 극장에서 영화를 함께 보는 경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모든 사람은 영화와 예술에 대해 다른 정의를 갖고 있다. 모두 각자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신문에 기고할 수 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영화를 만들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